

製自首飾

精製  
年  
上

# 1책 표지 뒷면



어제 주성편유서

사름의 성이 하늘서 품부하야 스스로 본  
연의 어질미이시니 성현이 되며 불회되미  
불파그귀질을 인하며 또 한일념의 잡으며  
노흙을 인할수록이라 중용의 글오되 나며  
알며 비화알며 곧하야 알미 그공일옴에 미  
처는 흙가지라 하니 일노 버블던머진실노  
상지의 주질이 아니면 후문을 버리고 엇지  
버공을 일오리오그러나 공저니 르샤져십  
실고을의 반드시 충신이 이시나 모의 후조

하 흙만 곳지 못하리 라하 시니 슬프카부즈  
는나 시며알으 시는 성으로 배도 그오히려  
후을 조하하 시거 든 후블며 둥인 배아래야  
도 후후문하 는 되성찰하 기예 이만 요절호  
미업는 지라 증저의 아성으로 배도 오히려  
날노 세번 슬피시니 하블며 범사름가 동정  
과운 위하늘러 예어그리 짐은 곳성찰치 못  
흙이니 슬프카내량덕만 후으로 배경전가  
온대 미스와 오지를엇지 능히만 일을녕략  
하리오마는 다만 믿음의 흥상닐너 글오더

삼피의 배삼피된바는 따름이 업서 곳흔글  
긋치련리를 조차 그러 함이 오삼피 배후에  
는 세외 항고 되미 항야물옥의 썩적이에 고  
본연의 성을 일흔지라 안지 글으 샤피순은  
엇더 훈사름이 끼나는 엇더 훈사름고 히옴  
이 잇는 재도 훈이긋득리라 항시니 슬프다  
본연의 성은 사름이 다 두어 시니 진실노 능  
히 스시리예 합항며 물물이 리예 합항면엇  
지 삼피와 후세의 눈호임이 이시리오한당  
배옴으로 비록 히옴이 이실임금이 이시나

련리내게이솨을싱각지아니하고도로혀  
니로되놉고머러헝기어렵다하니가히탄  
식흙을이괴랴슬프다엇지밧괴구하니오  
다만내게이시나무리오는재므섯고곳흐  
욕지니이를분별코자흐면대엇지성찰의  
잇지아니하니오그러나이도를알고능히  
헝치못흙이잉무의능히말흙과즈튼지라  
미양전스를너으매척을덥고래식흙을써  
뜻지못하니그러나내소흐능히이를헝치  
못하니훗사름의날우음이이제넷사름봄

즈틀떠니 마음의 흥상 벗그리노라 비록 고  
러나 조처와 유유스이에 호호도로 혀슬피  
지아닌는 재업서 후련리에 갓가온 재면  
음의 스스로 쾌하고 후련리에 어귀온 재면  
마음의 스스로 송연하니 이즈틀 재만호지  
라인 군동경을 스세 비록 떠나그 심술은 미  
호즈음과 연한 유독호곳이야네 스스로 이  
르지아니면 사름이엇지 능히 알나오호물  
며나라희뉘창호기는 원량의잇는지라 비  
아호로 충세예이세 권호호기를 문적 힘  
쓰

나잠시 ㄴ릿침과 초 초훈말이엇지 능히  
봉 ㅎ며 ㄹ훈몸이편안 ㅎ되 ㅎ야네의간  
난을 ㄴ초지냄만 ㄴ지 못 ㅎ시 ㅎ샹어려실  
적으로브터이제이르히일용주조스이에  
후츠후모 ㅎ야 ㅎ감 ㅎ자 와 후스려의 ㅎ어든  
자 와 후과차의 두로 ㅎ세친자 와 후스려를  
보다가몸애 두로 ㅎ성각 ㅎ자 를가져편즙  
ㅎ야클을일위원량을뵈고져 ㅎ야든지이  
시되결을치 못 ㅎ얏더니 스스로도라보니  
압희장과 뒤희계와 프른얼골과 흰슈염이



넷째 예비치 못할 때라 슬프다 스즈튼 광음  
은버머므로 기 어렵고 점점의 모하는 심기  
는 버두로 혀기 어려오니 만일이 제코유치  
아니면 다시 어니 쉼 기 두리이 오적이 정  
신을 슈습하야 이에 이끌을 짓고 그 일음을  
명하야 글오 뒤 주성편이라 하니 슬프다 이  
쁘지 엇지 엇트며 엇트리 오네 스스로 슬피  
는 자로 버그네께 권면하노니 이끌테럼하  
야 스스로 슬피며 이끌테럼하야 스스로 슬  
피라 그편이 두리이시니 글온너편이 오글

온외편이니 너편은엇제오곳스스로닥는  
일이오외편은엇제오곳다스림을흔는일  
이라오희라성이엇지멀며현이엇지멀니  
오곳내흔모음애잇느니공이스름이괴여  
현리순연함면성현이되고시공을이괴여  
인욕의싸지면하위되니요순과결주의는  
호요미이모음잡으며다못노흐매이실손  
름이라능히싱각함면성이되고싱각지아  
너면광이됨을셔의엇지아니닐넛느냐내  
만후으로베잠간이도를아되능히몸소행

치 못하 나 이 또 한 말 노 ㄴ ㄹ ㄷ 침 이 나 그 러 나  
성 훈 이 쇼 쇼 하 야 몸 소 흥 흥 고 남 음 이 아 니  
미 안 이 니 말 노 ㄴ ㄹ ㄷ 침 이 라 이 ㄹ ㄷ 지 말 아 ㄴ  
음 애 침 줌 하 야 북 응 하 야 이 글 을 봄 애 임 의  
흥 흥 자 언 뽕 다 널 너 흘 치 말 며 능 히 흥 치 못  
할 자 언 또 할 어 렵 다 널 너 획 지 말 나 슬 프 다  
네 쥬 문 왕 이 녀 상 을 엇 고 ㄴ ㄹ ㄷ 샐 되 션 군 테  
공 이 그 뒤 를 보 라 미 오 래 다 흥 고 인 하 야 일  
흙 흥 여 글 오 뒤 태 공 망 이 라 흥 시 니 사 름 의  
게 도 오 히 러 그 러 흥 거 든 흥 문 며 후 문 가 이

글을보아내능히행치못하는자를네능히  
힘써행하야기움이이이글을지은드시오  
네게도흔계할하는효되니내김히원량의  
복라미잇노라

세지유쇼섭제격등출십칠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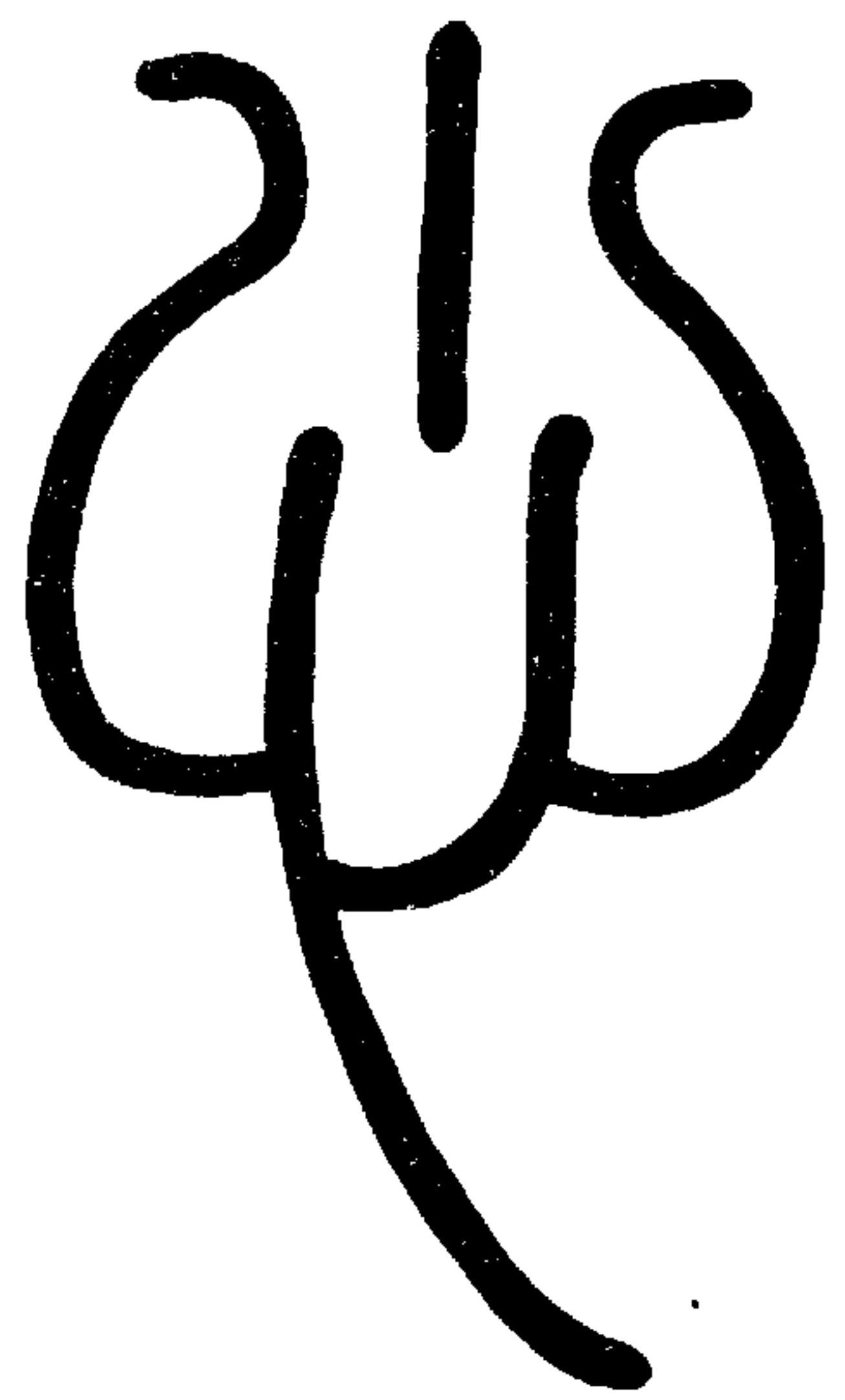
통정태우승정원우부승지제 교검  
경연참찬관출추관슈찬관신 니철보봉

교서



일신지듀만화지본

흐몸의뒤오일만화의근본이며



무음심

순리주공종육주수

리를순히하면공이오육을방종하면서라

본연성현품어 려 주공약문알인육

충양가릉위성현 성찰극치필야선

본연흔성의어질미 하늬씩품하야시니  
치오고치면가히능히성과현이되리로다  
공부를지음에만일인육막음을물을뉘대  
슬피이과여다스림을반드시몬져할뉘라

# 어제 주성편

문정년편집

## 너편

넷사람의 그릇침이 스스로 처세이셔  
팔세예쇼후이오십오의대후이니 왜  
소응되는몸닥기예비로슴이오어버  
이름사랑하고얼운을공경함은인을  
향는근본이라갓가온져로브터먼저  
미처며여튼저로말미암아김흔저드  
느니말일 스스로 닥고져할면대오직

므음바로기예잇고므음바로게함는  
도리는경전의주상히마초와시키고그  
능히연구함면반드시스로어드미  
이셔만스와만블이다함므음으로말  
미암을떠라사름이오룬이이셔진실  
노므음애본함야시너아비사랑함고  
주식이효도함도곳이함므음이오님  
금이올코신해충성함도곳이함므음  
이오지아비화함고지엄이순함도곳  
이함므음이오어룬과어린이차례이



솜도곳이훈ㅁ음이오벗과버지밋보  
미이솜도곳이훈ㅁ음이오버륙예에  
이르히이ㅁ음아니미안이니레로버  
둥을제흙도그도훈이ㅁ음이며악으  
로버화를인도흙도그도훈이ㅁ음이  
며샤로버몸을바로게흙도그도훈이  
ㅁ음이며어로버물기를범흙도그도  
훈이ㅁ음이며셔로버획을바로게흙  
도그도훈이ㅁ음이며수로버물을다  
흙도그도훈이ㅁ음이라외되며순됨

도이네 할름이 오결되며 뒤됨도  
할네 할름이 나스블의 응흠이 아  
너 오무섯고그름을 바로게 하고자  
할편대 스스로 슬핌이 예본져 할때  
라 오직이 스스로 슬핌은 스스로 닦는  
종월서이제이편을 지어 우리 원량을  
훈하노너엇지 내의 억탁으로 너름이  
리 오경전을 이에 의거 하야 시너 주흡  
다 너 원량은 주주히 복응하라

순과척의는 호음이 곳공과사름이 나공은

므섯고 곳련리오스느므섯고 곳인육이라  
슬프다 비록성인이 나엇지 육이업스리오  
마느성인은 자연이 절의 마자련리에 합항  
고 중인은 절치 못할고로 인육의 흐르느니  
이를 변별코져 할편대 공리와 처지 아니 오  
엇테료

네이려신혜예후문의 공취업서십삼의이른  
후예비로노스능의게나아가나그러나기  
거할크음의감히티만흠이업슴은다름이  
아나타곳아 조가법이엄할연피나만일

도 능히 후문으로 버도오면 그나아가며 그  
저람이엇지이에 그치리오마는 내는게야  
비호기를 인하여 능히 몸소 행하며 실노름  
지 못하니 이내 스사로 탄하는 재라 오히려  
원량은 날을 본밧지 말고 그잇새 예 힘쓸 때  
어다 새여 새여 두번 오지 아니하는 나라  
슬프다 내어려 실새로 브러다 능하 배업스  
나아 조가 법의 엄하심을 인하여 넷날 쇼  
심하 라하 오신 훈계를 밧조와 일성스스  
로 힘쓰기 불과 과근 과신 두지라 어려 신새 예



도이이름음이오느즌후도도흔이이름음이  
너스위스이예비룩후패활치아닌고지이  
시나구러나네로브터제왕의방벽샤치하  
야괴탄흔배업슴이전혀흔패스로말미암  
음이니이를밀워볼편대도흔엇지이에셔  
낮지가니하리오슬프다인군이역도의우  
희이셔그공경하교저허하느낫재오직  
환련파빅조종덕름이오통용의메신공  
평<sub>○</sub>흔을일것고상셔의니로뒤도라보아민  
삼을거허하라하니그러면우와아래공경

항고저허항지아님이업슬떠나라

땡지너르샤뒤사름이점은즉부모를스모항  
고석쇼흙을안즉쇼애를스모항고려지이  
신즉터즈를스모항다항시니슬프다아성  
이엇지날을소기시리오증저도항너르샤  
뒤회려즈의외항다항시니그연유를공구  
할면대블과항육저라오희라신체와발부  
는부모의게밧지아님이업스니내몸은곳  
부모의몸이여늘몸의육심을인항야련리  
와인륜의큰거슬모로면그엇지사름의즈

식이되리라 너 르랴 너 비록 만후이 나 이런  
의리를 강함이 오래 되 성회 천박함이 기로인  
하야 능히 석년의 효를 다치 못하니 듀야의  
흥수함면 권연이 안자 속의 오열함을 씨듯  
지 못함 노니 오희라 원량은 맛당이 이에 보  
아 후에 뒤웃지 말더 어다

슬프다 날 곱히를 시탕함이 어젯날애 이솨  
트니 그 썩여 후 밤이 김허 직추의 나아가고  
후인 함야 배 되셔 잠이 잇더니 이제 너러  
하년의 편안이 자니 비록 다시 전의 일을 행

코져흐나 그가 히어 드라 이녕히 등유의 쓸  
지던 썸을 썸와 생각흐고 흥탄흔 재라 미양  
증주의 놀을 위흐야 효도를 하리 오흐신 글  
을외오매 소리를 먹음고 눈물이 늦치 넘 뽕  
을 써듯지 못호라

너랑 덕으로 배능히 오늘날의 이를 거시 업스  
되경경흔 일념이 곳 하늘을 풍경흐고 벅  
성을 사랑흠이라 오희라 랑덕이엇지 능히  
이를 알니 오마는 석년시 랑하음애 울어러  
보음이익은지라 비복 녕섭하오오시는



가온대겨오시나시어를 명호오샤현상  
을보라호오시고모당의척호오샤백성을  
이훈호오시나이 주교의주상이기록호  
오신배오보감의초실년배라석년의공  
경호오시던바를조쳐석일의이훈호오  
시던바를레럼흠이이인주의덜덜훈되라  
레귀예호하니르지아넷노야부모의공경  
호오시던바를호훈공경호며사랑호오시  
던바를호훈사랑훈다하니범사름도오히  
려그러호거든호물며인군이된자가그러

모로 그 먹으며 쉬매 이 믿음 이 감히 슈유도  
방흔치 못하야 이를 넘흠도 이에 이시며 명  
언흠도 이에 이시니 오희라 원량은 이 말을  
싱각하야 복응하라 슬프다 천명거 취는  
오직 공경하며 공경치아니 흠애 이 실속름  
이 오민 심향패는 오직 사랑하며 사랑치아  
니 흠애 이 실속름이니 가히 두렵지아니며  
가히 힘쓰지아닐 것가 그러나 공경하되 돈  
독지아니면 능히 하늘을 감동치 못하교  
사랑하되 정성으로 아니면 능히 백성을 감

동치 못하노니 더욱 맛당이 힘쓸 때이다

오 희라 세상의 엇지 형테 업스리 오 마는 엇지  
날 곳 든 재이 시 리 오 내 오늘 날 을 보 전 하야  
덤은 곳 황형의 주신 배라 슬프다 년첩을  
넋 관하 니 지 구 히 니 르 기 어 려 온 재이 위라  
송 태 종 의 영 려 으 로 배 도 쇼 년 천 지 라 일 크  
름 을 들 어 불 예 훈 말 이 잇 고 증 모 의 어 질 모  
로 배 도 그 오 히 려 북 을 더 지 고 닻 르 니 왕 첩  
의 제 왕 이 지 구 히 어 려 온 재 희 쳐 하야 부 슈  
의 참 쇠 만 하 니 이 에 능 히 탈 연 쇠 연 훈 재 적

은지라 오희라 신축동일을 생각 흠애 오히  
려 늑연하니 황형의 지극히 우의하오신  
어질미 아니시면엇지 배이에 이르리오 비  
록 이런새나 황형의 날보심과 내 황형  
섬프미도 몸도 소이업는지라 오희라 황  
형의 담연무욕하오신지 극한덕으로 배그  
위예하오심을인하야 날노하야 몸피로움  
을논호과져하시되 참아 봉승치 못하얏더  
니 문득갑진의미 처증주의 늘을위하야 제  
하리오하 신글을외오고 멀니 의릉을보

라매 마음 이 불허 지고 귀운 이 췌려 짐을 췌  
듯지 못하 노라 오 회라 원량은 내 이 뜻을 데  
럽하야 다른 날 모와 능의 날 섬기 는 모  
음으로 배우리 황형을 밧들라

물잇 사람의 성이 견되기 어려온 재지간 흔싸  
히 오 참기 어려온 재 부효 흔말 이라 내 성이  
본 뒤 소활하야 이런 즘음의 념연 하 고 이 연  
하야 뜻지 아닌 는 듯하 며 보지 아닌 는 듯하  
야 오직 내 게 잇는 도를 다 흘려 림 이 나 일 노  
버 보 건 데 함양의 공 뷔 잇는 듯하 되어 하하



는색와접불하는즈음의도흔후적하야과  
동하는재업지아니하니이엇지다름이리  
오함양하는공취두독지못하고공리하는  
도리극진치못하연피라오희라원량은날  
을보와마음힘늘떠어다

론어향당편이성인을잘형용하얏는고로내  
일즉이에마슬두어미양 묘령의오르며  
노릴즈음애마음의섭지승당이하의글을  
외오면귀운이스스로피이고평안하야고  
근취할주를세듯지못하니지구하다성흔

의도움이이심이여

내론어의테임의관심으로브터는내보고자  
아닌노라하신글에미음의스스로흥개함  
야미양 향사의관천후와변두를현현  
전은성훈을싱각하야스스로슬퍼감히도  
곰도흔치아니하노라

넷사람이니로되사람이취혀블이업스리오  
마는고치미귀하하니내비록이의를아  
라미양령령주조하는즈음에취엄의비록  
과채이시나후두로혀주시세드르며후만

후에 슬피 쉬듯 고임의 쉬듯 후는 다시 흥  
고져 아나 흥나 오히려 후다 시 흥나 이논이  
막음 다 소리 미독실치 못 흥야 일됨이라 가  
히이귀여 탄흥락

물잇과 채이심애 처엄은 후 뒤연 흥야 쉬듯지  
못 흥나 밋전 스를보 매스 스로 두로 혀검연  
흥재만 흥나 스귀 늑는 호험이 엇지 엇고 엇  
트리오

네만 흥흥야 십삼으로 브터 쇼 후을 늑으나 그  
러나 오히려이 제몸의 바다 쓰는 재 곳이라

비록 절목미세한 일이라도 감히 방과치 못  
하야 지게를 열엄즉하면 또한 열고 지게를  
닷암즉하면 또한 닷고 박반치아니 하며 방  
반치아니 하고 사름의 수셔를 여어 보지아  
님곳튼 뉴라도 또한 감히 흘치아니 호라

내 귀품이 어려신 췌예너 무편벽하야 물잇사  
름의 어지지아닌 자와 바로지아닌 자를 김  
히스스로 아쳐하야 당춧더러 일듯하니 비  
록 일즉듯 빛과 말슴의 뵈지아니 하니 후에  
싱각하면이 또한 귀품의 과함이 라 비록 췌

두라고치나그러나선을선타하며악을악  
다흠은사름의덧덧흠경이라그러므로더  
러일듯흠무음이또흠능히문득업지아니  
호라

내괴품이어려시므로브터눅흠조하하기에  
과하야블잇사름이쳐스흠이무음에맛지  
아닌재이시면개연하야글니너기는재김  
더니만후에그편벽흠을알고스스로그형  
흠을도라보니또흠그사름의게밋지못하  
는재만하니일노브터무음의검연흠지라



그 비록 고치나 오 히려 일을 들와 보이는 재이  
시니 이 또 훈 후 흙이 여 트므로 일 됨이 나라  
식과 식은 사름의 훈 가지로 훈 고자 훈는 배로  
뒤 성인은 절의 통 훈 고 통인은 능히 절치 못  
훈는 니 슬 프 카 통인의 절치 못 흙은 해 일 신  
의 곳치 거니와 제왕의 절치 못 흙은 그 해를  
가히 이 기여니 르랴 왕첩의 황음 훈는 님금  
이 그 허물이 다 식과 식으로 말미암아 시니  
가히 두렵지 아니며 가히 두렵지 아니랴 너  
비록 량 덕이나 잠간 의를 아라 안을 뒤 훈

매그 비록 입의 마즈나 대역의 열식 하라 흠  
을 생각 하야 스스로 힘 빠져 머그 롬을 써듯  
지 못 하 고 비록 변화 등이 나 혼군의 식의 고  
후 흠을 경계 하야 아 막음을 정돈 하 노니 오  
희라 나 히이 제 오 십이 오 또 삼이 라 슈발이  
임의 희여 시 되 오 히려 너 무 방 흘 하 기 예 이  
르 지 아 난 작 는 이 조 심 흠을 힘 넣 어 구 러 하  
미 라 슬 프 카 옥 식 과 진 슈 압 희 버 렷 고 분 화  
와 치 미 눈 의 현 관 하 야 시 니 만 일 큰 력 량 의  
조 존 흠 이 아 니 면 엇 지 배 이 를 제 어 하 고 욱

을알하리오오희라힘받더어다오희라힘  
받더어다

너쥬레를넉다가왕의곳애어셔홈애이르러  
므음의흥탄홈을셔드지못하니엇제오후  
와빈파부와애각각초셰이셔명분이문치  
아니하니가히쥬람닌지의풍을볼셔시오  
도흔본지복셰의터히될더라내이에너욱  
흥감하는재이시니 무능배후로금지점  
점번성치아니하니똥야의싱각함므음  
이스스로척연호라비록그러나상훈의엇

지너르지아니 하얏느냐 판녀닌지 와듀관  
범도의문을인 하야미자 배김히 후왕의보  
라미잇노니 이비록낙낙히 제설하나쁘지  
임의김흔지라 넷사름이니 토뒤첩잉수업  
스미사름을난으로 배마루침이라 하니 듀  
람의 화업스며 문왕의덕이 업고다 만종스  
이번연하기를위 하야사름을글히지아니  
하교할글곳치고 옥을임 하면 판넛도의반  
하야 혼군으로더 브러흔가지로도라갈더  
니가히능연치아니며 가히능연치아니라

오희라고 불뎌어다 오희라고 불뎌어다

불읏문조를 보매가히 존함즉함며가히경

함암즉함고지이신즉비록누은새나컬연

히이러나불씨듯지못함야무릅흔거두고

다시본후에므음이이에평안호라

공주의삼가신바는지계니지계엇지흥치아

니함냐그러므로불읏 능묘향전함오매

비록지겟날이아니나향을전함 읏는날노

부터므음애함샹지계함노라

역애불오되왕의유묘의부함다함니고의진



그릇결니키이실가저허일죽늬연치아니  
치아니호라

사름이후문의주미흙이음식의주미흙만저  
저못하니슬프다음식의주미는블과일시  
의블음이오후문의주미는곳일성의블음  
이나라

심신을점검흙이밤누슈녕호흔써예장도  
호나라

손사막이글오뒤담은크고적하고묵음은적  
고적하여저혜는원코적하고행실은방코

적흐다흐니 내일즉이말의마슬두노라

왕신민이니로더사름이노물썩리를먹으면  
벽수를가히지으리라흐니이말이스스로  
무흔흔의미잇는지라사름이이마음이이  
시편무슴일을짓지못하리오

내경전을보매후문의절근흔잔주친히스스  
로흔자흠긋며스귀를보매치란의가히  
감게흔잔주몸소친히당흠긋며쥬심하  
야연구호매흔어드미업지아니흐니후문  
의효험이엇지갑지아니하리오

과설잡귀사름의귀와눈의깃븐지라그러므  
로사름이반드시탐하야보고경전과스귀  
는심오하며호박흔지라그러므로슬코게  
올으기쉬오니가히앗김을이피랴

고요이안자신새예잡념이혹일거든두로혀  
죽시눈을닷고심신을슈습하면문득협연  
흙을세듯노라

설현이니로져언어를삼감은양덕하기예큰  
거시오음식을존절흙은양성하기예큰거  
시라하되나는곳곳오져음식을존절흙이

도훈양덕흥기예큰거시라흥느니엇췌노  
쇼쟈를방흥흥고대쟈를능히극귀흥랴고  
러훈죽언어를삼가고음식을존절흥을가  
히는화들히라못흥떠라도훈말이만훈죽  
귀운을손흥니언어를삼감이도훈양성의  
흥되아니냐이가히서로쁘이미된다니를  
떠나라

설선이글오되지극히큰사호나옴은훈념의  
선치못흥으로말미암는다흥니내이에훈  
귀로배데흥야글오되지극히큰어질문일

넙의어질므로말미암는다흐노라

설씨득셔록가온대쇼언침묵흐란스저간략  
흐고절지흐니내곳배스즈부를삼으나그  
러나쇼언흐고침묵호미도흐엇지말이업  
슴을너름이리오설씨도글오더흐상췌췌  
흙이가히배도를불거시오덕이나아간췌  
말이스스로간략다흐니이두도를그으기  
원량의비라미잇노라

한쇼렬이태즈를척흐야글오더어질문적기  
로배흐지아니치말며사오나음은적기로



배흐지말나흐니이진실노격언이라이두  
귀를가져우리원량을위흐야힘쓰게흐노  
라

네장공예일벽춤을인삿를쁘니  
스모흐야인흐야스스로널너를오뒤  
이오직흐나히어늘춤이엇지이러  
만흐노꺼꺼공예의든지  
름이아나라일을  
내일죽음을민망흐야  
제신의구지청음을인흐야  
비록후병흐야

섭헝헝나 감히 쥌편 치아니 헝고 썸이 르면  
누슈보헝기를 썸와 향을 궤오고의 관을 정  
쥌헝여 단정히 안스면 동동헝헝므음을 궤  
창의 스몹출듯헝니 슬프다 샹시에 만일 썸  
로느 곱막다다그러면 그가히 배성이 되며  
그가히 배현이 될터로 되앗갑다 능히 추광  
치몹헝이여

식과 식은 사름의 대옥이라 그 절코 쥌헝면 대  
춤을 인삿를 본터 헝터라 그러므로 내성동  
헝기로 브터 일노 배므음을 잡아 처엄의 비

록패활치못흐고지이나긋튼이에첩연  
하야패하기예이로와

내우연이흐글을보더니사름이이셔식을만  
나모음이동하야스스로닐너글오더하늘  
을가히소기랴귀신을가히소기랴이긋튼  
져세힌연후에이에능히그모음을억제하  
다나르니이도흐인잇쌍공뷔나그러나두  
세번이른후에이에춤이니이를밀워볼면  
대고욕심이뎡호매만일크게힘을착하야  
강극지아니면엇지버제어하리오

봄풀이 비아흐로 나매 흥상 두렵게 의 들의 풀  
제치아닌 눈 모습 이 이셔 춤아 상히 오지 아  
나 호라

식 의 옥 이 사름 이 뒤 업스 리 오 일 시 의 옥 을 춤  
지 못 하 야 왕 왕 이 불 의 예 싸 지 니 그 만 일 공  
성의 편 하 신 바 시 경 가 온 데 주 쇼 와 정 위 의  
의 를 깎 히 슬 피 면 엇 지 감 받 하 고 징 창 흘 리 무  
음 이 업스 라 내 비 록 만 후 이 나 적 이 이 에 어  
듬 이 이 쇼 라

일 주 심 기 랍 연 흘 쎄 예 다 시 판 세 하 고 오 슬 텡

제하고 안주면 이 믿음의 돈연이 기량함도  
다

내 비록량덕이나 함 믿음의 하를공평함애  
이셔함브람파함비예도 이 믿음을브리오  
지아니함야구버 믿음애슬외고우러러상  
을보니그함응함는배이 믿음의조사를  
로논고로속야의공공함야감히티황치아  
니호라

내 이제귀운의외하고경신이모함되근력이  
오히려이맛튼자논그엇지다름이리오곳

조봉이 념삼흙이라의 북의 후이 흙은 이에  
버귀부를연계하는 배오음식을 후이 흙은  
이에 버귀위를상계하는 배니가 히경계치  
아니하라

내 비록만혹이나 멍음의 향상스스로 힘베길  
히경계하는 자는 곳분식하야 배사름을되  
덥흙이니라

추성의이단을물니치신공이우의아래잇지  
아니하니 맛당이 칠편을길히볼더니라  
이단의해를사름이취아지못하리오마는능



히벽흙을확여히못흔쟈는이또흔궁니흙  
이경치못흙이니라

스의서로침노흐매그스스로슬펴알흐고져  
흔편대맛당이기와복을세우고적국을막  
음긋치흔떠니라

내만후으로배그능히다치못흔재만흐니그  
큰쟈와중흔쟈로배니를편대져되여능히  
효를다치못흐고져되예능히져를다치못  
흐야시니이제비록멀니스모흐나엇지배  
저와미처리오오희라원량은더욱이에힘

받들어 다 증거의 효함심으로 배도 망지다  
만골으샤 뒤가 타함시 너 어 비 이 섬 기며 형  
섬고 물엇지 글오 뒤다 함엇노라 함라

내 어려 신뎨로 브터 쇼후 보기를 깃거 함야 나  
히이 제오 십이 오도 삼이나 드지 오히려이  
에이시되 도로 혀함는 바를 도라 보니 고기  
를즐기되 맛아지 못함곳도 다

내 좀녀의 이실 제 현명을 양성으로 배 밧좁고  
도 어시이셔 글으샤 뒤 존양의 의를알고  
자함편 깨깁히 진심편을 완미함라 함시니

묵음의 일즉공경하야 조차 일흠을 삼앗더  
니 이제 두글자를 가져 내원량을 주노니 그  
맛당이 명심하야 복응할터이다

내연한흔쉴예물잇언에이셔가히존하며가  
히경할싸히밋춘즉비록누어시나반드시  
일고비록안자시나반드시오슬경제호라  
내귀질의편벽흠이흔조쓰의잇는지라그동  
할제그글은주를아지못하다가후에싱각  
하면스스로써누라흔번웃는재만흔지라  
그러므로미양동할쉴예눈을닷고정호라



너 비록 괴운이 뷔하고 정신이 날야 퇴연할  
때만 하나도 흠감히 방수하고 거처아니  
하야 누으며 반드시 몸을 기오리고 안즈매  
반드시 좌를 바로게 하니 이것지 후문의 공  
이리오아 도가법을 테렴하야 그러함이  
나라

너 비록 쇠모하야 괴록하기를 썩지오는 재만  
하나그러나 불릿가언과 선보는 으뜸애 착  
하야 일의 힘하노라

장경하면 날노강하고 안스하면 날노투하노

니가히일성의취라니르리로다

성경이주는비록어려실제로브터늘기예이  
르히행흐나오히려가히유여흐리로다

성성법이그장성찰흠애긴흐니성찰흠은모

섯고곳내의냥심이니라

내성이본디스스로눕기를스모흐는교로이

제비룩경신이모흐고기운이외흐야쇼연

삭연흐나오히려기예욕흐고무우의풍흠

드지이시니이가히내기질을볼곳이니라

한교의대풍가는가히기샹을볼새시오송조



의 모든 문을 통치함은 가히 그 모든을 보리  
로다

한성 제도의 남호매신 마트나 그 연척 흠애 밋  
처는 석의 황하니 가히 석은 녀하고 너는 임  
타니 르리 로다

사람이 후니 로되 제왕이 일일만 기라고 짐심  
하는 공 뷔엇지 위포와 마트리 오하니 이는  
제왕을 조포하기로 인도할말이라 네 옷장  
슈류연이 날이 못도록 흠하니 흠은 공  
경흠이라 슈류연이 비록 후문의 선비아니나

천진을넘흐야오히려그러흐니만귀비목  
번흐나엇지이에비흐리오

내비록금등의성장흐야시나흐샹므음이한  
스와포의맛녀어러싹뻗로브터이제이  
르히이므음이흐글맛튼지라그러므로우  
흐로 동토를밭드오매도곳이므음이오  
아래로신린을접호매도호흐이므음으로  
라

사름의정신은유흐고세간의사위는무궁  
흐니유흐흐정신으로버무궁흐스위를귀

록흙이엇지어렵지아니하랴져슴서연신  
이날을일을쉴와기록하야듬으로배권하  
나내본뒤성이소활하야능히헿치못하엇  
더나이제외모흙으로배강인하야이글을  
지을서열을기록흙애아흙을니저배총괄  
하기어려온고로마지못하야보는거슴  
와문득기록하니고효험이업지아니하  
라주흙다너원량은이드즐테렘하야물  
잇성훈을보고꾸언을드르매반드시  
좌측의  
번면엇지이무의열훈완호의셔  
낫지아니

하랴

내 공업 두자로 배그음의 스스로 힘배물잇동  
작흠애 비록례예맛당이 흥흥뵈뵈라도오  
직이그음이 후풍예예흐를가저허하노니  
큰자로 배니를던대 저성을뵈드러칭샹  
하하오매그즐거움이엇더하리오마는도  
흔감히방흥치못하야례를못흔연후에적  
이평안하니슬프다네로브러제왕이연락  
호매절흥주름아지못하는자느므슴그음  
이여므슴그음고걸이되여뒤되미진실노

일념의 어그러지므로 말미암노니 가히 두  
렵지 아니하라 주 흠다 너 원량은 배능히 공  
경하야 세렵하라

내어려시므로 브터 줌이 적고 나히 겁흐매 너  
욱 줌이 업서 비록여름 밤을 만나 나오히려  
그 길물피로이 너기 노니 석년시 봉을 썬를  
썬와 생각하면 일비 흥회하는 지라 슬프다  
네 당현종이 흰날을 가져 밤을 삼고 류경을  
지어 옥을 종하니 브스름고 추길 이귀구  
하니 한판의 셔셔와 뉘 옷 찬 들엇지 익호미

이시리오

돈친하는의를써경의문쳐널너실서이의를  
임의상훈의닐넛는지라보니이제근종이  
적으니우리조종으로브터보면엇지멀니  
오내만일그션패됨을드르면비록천자와  
미져나복음의흥감흥감하야친을친히흥  
복음이유연이나니오희라원량은공경하  
야테렴하며공경하야테렴하라

만일글을읽으매글은스스로글이오나는스  
스로내면엇지글읽는쁘지리오흥물며제



왕의 후은 위포와 달나 전혀 장귀예 잇지 아  
니 하니 그 맛당히 몸의 두로 혀고 녕령의 협  
흔 떠 나라

안주의 낙하시던 바 낙주를 맛당이 겁히 완미  
흔 떠 나라

등용의 지극흔 정성과 대후의 지극흔 어질 본  
가히 서로 밋과 안히라 나를 떠나 지극흔 정  
성은 못던 디위 하며 만물이 후하는 근본이  
오지극흔 어질 본 곳 집을 마스기 하고 나라  
흔 다 소리는 준적이 나라

노흔ㅁ음은구흙이가히후문의종요흔되라  
니를떠나심원파의마를만일크게빙성하  
야조존치아니면엇지배힘을어드리오블  
잇흔일을지으매못하야도다른성각  
이잇는쟈노도흔이ㅁ음이주작흙이니라  
구괴흙이ㅁ장어려움은기질의원벽흔고지  
니션위도흔니로뒤맛당이본녀이에힘을  
착하리라하니라

블잇말을들을스음의ㅁ장어러온쟈는곳을  
흔듯하되그르며그른듯하되올흔재니궁

리아니면엇지배이를분변하리오

넷거울다시글기로비유호미진실노년실하  
야임의셔문의주상히하야시나이제스스  
로솨히고자할편대까지아니하고엇지료  
넷사름이니로더옥이담흔주름이뵈리고  
목음이뵈러은죽리뵈다하니옥을담히흔도  
리오직글기예잇는나라

만일싸우희버린글삿를보매가히존하고가  
히경하얘죽흔재이시면사름이불을가져  
허비록총박흔싸라도반드시주어조히시

소라

물깃음식 흠애 비록 후적기 조치 아닌 거시이  
시면 모습의 스스로 널너 글오 뒤이논음식  
가음아는 재무심히 슬피지 못하야 일위미  
라하나고 러나니 르고 다스리지 아나면법  
이업슴이 오먹지 아나하고 다른사람으로  
하야 품먹게 하면 또 흠사람을 소김일서이  
에그불결흔것만 브리고 반두시몬녀하녀  
호라

성선의지의를경선의연구하고 녀뒤의치란

을스귀예강논흐면고러흐기를귀약지아  
니흐야주연이마시이시니이곳지아니면  
비록만권셔를넓으나엇지람을늦흙과다  
르리오

므음의전일흙이클넓기곳튼거시업스나고  
러나글썩와클썩스이예의심이이논고지  
이시면생각이이에이시나후글웃넓기를  
일취면이비록강후흐는가온머일이나고  
므음이전일치아니문곳흔가지니흐블며  
다른일키주작흙가이에경계흐야더욱존

심하기를 힘쓸지어다

내일즉활썸을보니 비록 상시예 잘佐는 재나  
맛치지 못하는 재만하니 이도 훈음의 동  
훈일단이라 믿음의 향샹웃더니 경년의 사  
단의 셔뵈서 스스로 날오 뒤 맛치지 못하야  
도원치아 남은 군주의 되으샤의 예도 훈닐  
너시되가 히배덕행을보리라 하여시내  
훈일의 존심하는 공부를가히이에 힘쓸새  
시어늘그샤 위예 남하니 예미처는도 훈능  
히동훈이 업지아니 하니 이도 훈관첩을위



하야 그 러 흠 이 라 스 스 로 흥 일 존 심 흠 이 득  
실 치 못 훈 주 를 붓 그 러 이 를 인 하 야 더 욱 막  
음 의 힘 쓰 노 라

본 어 향 광 편 의 니 로 뒤 오 직 술 이 량 이 업 스 시  
되 난 의 밋 지 아 니 시 다 하 니 난 의 밋 지 아 니  
하 시 판 삼 주 는 가 히 성 인 의 흥 년 흥 심 을 보  
을 일 단 이 어 니 와 흥 인 그 트 매 니 르 러 는 반  
득 시 근 년 이 경 계 하 야 먹 지 아 난 후 예 야 가  
히 난 의 미 출 념 네 업 슬 떠 니 듀 의 듀 고 와 하  
의 오 주 가 의 엇 지 니 르 지 아 니 하 엇 는 냐 넷

사름이 술 그루 술 밧드러고 님 금을 경계 훈  
재 잇고 범질 의 광약 이 오 아 롬 다 온 마 시 아  
니 라 훈 글 이 든 훈 심 이 널 실 훈 지 라 그 러 나  
엇 지 특 별 이 이 썸 이 리 오 석 년 어 쟁 가 온  
대 브 리 이 실 녀 시 니 내 일 즉 공 경 훈 와 외 와 스  
스 로 막 음 의 멩 세 호 라 슬 프 다 슬 의 황 흙 과  
식 의 황 흙 이 그 해 훈 나 히 니 이 다 제 왕 의 보  
와 경 계 훈 고 지 라 슬 프 다 원 량 은 공 경 훈 야  
테 렴 훈 야 복 응 훈 라

레 예 니 로 디 칠 일을 지 계 훈 다 훈 니 그 성 각 을

일위고자할편커지계예셔본져할써사업  
는지라고러므로물잇친향예임의셔계할  
후의훈을먹지아님ㄴ튼거시분과년목가  
온대할일이나도할감히홀치못호라

적지양초우물의들물보고측은훈막음이이  
심은곳본연의선단이라느는나비등잔의  
부뒤치는거시비록미물이나도훈이와ㄴ  
튼고로내비록문자의슴심훈써나그만일  
이를보면혹손을들너조츠며혹촉을잡아  
벌니하니이도훈참아못하는일단이라늘

프다 이 모습으로 버그능히 확충할면들의  
엇지나 볼먹는 빛치이시며 빅성이엇지전  
년 흙이이시러오마는 앓갑다능히 추광치  
못흙이여오희라원량은내 흥탄하는뜻을  
테럼하고 김히 무속당추성의 말슴을공구  
하야 비록하년우희이시나 부옥의 끈궁할  
형상을그 흙상이봄마치하라

당류공권이니로되 모습이녕할즉필이녕타  
하니가히필간이라니를떠나엇지특별이  
이쁜이리오 모습이정치아니 할고일이정

흔자를 내듯 못호라

내듀자후전을보고우연이란흙을세듯지못  
흙은엇지오적이란말흙은적이니비록백  
보의천양응는저소와칠찰을소와흙는힘  
이라도적이이신연후에야가히배맛치블  
니를떠니적의의김흔더듀저글오뒤이윤  
의뜻흔던바의뜻흔며안연의비호던바를  
비호면지난즉성이오밋춘즉현이니샤의  
비흙던대샤를비호는재처업은비록밋지  
못하나닉어녕흔즉가히배척을맛칠떠라

고 할은 할어 비 특성을 기약 할며 현을 기약  
할야 트오 키려 능히 밋지 못 할싸 저 허 할거  
든 할를 떠스스로 기약 흠이느 존 것가 그러  
나 력이엇지 멀니 오오 직내 게 이시니 만일  
진 것아 라 힘 배 힘 응면 성이 되며 현이 됨이  
고 엇지 어 력오 리오 그러 치아 니면 이엇지  
보는 재 력을 보 라 고 능히 보지 못 흠과 다르  
리 오

넷말의 나 르 지 범을 그리 매 가 족은 그러 도 썩  
는 그러 기 어 렷고 사 름을 알 매 늦 춘 아 라 도



무음은 아지 못하구나. 하니 이말이 비록 천근  
하나가 히달실라니를 떠라. 그러나 이것지  
특별이 사름보는 자의 맛당히 힘달바사름  
이러오만 일빛과 안히하늘 곧 트면 보는 재  
엇지 무음을 아지 못하느탄이 이시러오

네제오름이 편안이 자며 다 못자지 못함으로  
스름삼으나 열편가며 가지아니 흠이도하  
스스듯이니 엇지 배니름고형의아들은 곳  
내아들이오네아들은 곳형의아들이니공  
지빙우벽의 못조오블데답하시매엇지니

르지 아니하야 계시냐 주의 하시는 음은  
가지로 어든바리니 그엇지 계교호미이시  
리오

내 비록 지운이 란 연하나 밤이면 나 조의셔나  
은고로 밤가온대 생각이 만흔새 예신료를  
첩하야 후후을강하며 후경스름의 논하면  
보조 흙이 업지 아니하나 제신이 비양보석  
하기로 뼈날을 권면하니 말이 비록 열실하  
나 그러나 왕첩을고람하면 연한흔새 예설  
어 들닐근하는 재만하니 슬프다 이 위예거

하야 그 능히 날을 본바드 미이브라 는 배로  
라 오희라 원량은 그 힘날 떠나 다 그 러나 이  
므 음이 잇고 그 실이 업스면 후문과 빅성의  
게 엿지 익호 미이시 리 오이 또 훈내 스스 로  
벗그 리는 재로라

저슴씨 날을 저훈노 배 권하 는 재 잇거 늘내 우  
어 글오 뒤이 제 경신이 보손 흙으로 배 엿지  
능히 하리 오하 앓더니 오스 이 상훈을 짓고  
이 글을 지으 매 경신을 슈습 훈재 만하 니 이  
에 그 말 이 올흔 주를 씨듯 패라

선위니로되 빅척이나 흘멧머리예 다시 흘거  
몸을나온다흐니 슬프다 빅척우희도오히  
려다시나오고 쳐흐니 범사름의커예 밋지  
못흐져고 밋자히나흐노

일즉날을홍의 두글쑥로 배권면흐는재이시  
시내게가히약척이나니를떠라그러므로  
일을인하야세쳐어더다시관간 두글쑥로  
배우리원량을권면흐노라

시예니로되 학이 구고의셔울거든소리 하  
늘의들닌다흐니 슬프다 정성의 하늘을

격함이 학의 우름이  
하늘의 들님 그트니  
가히 경계 할야 삼가지 아니 하며 가히 저허  
두리지 아니 할라

내 석년의 글을 일 글 쟈 예 넓으미 과정이 이 실  
지 삼도와 낭연 즘의 그 후 편 수를 준치 못  
흔재 이 시 매 준치 못 흠으로 배 준호 불삼으  
니 이 논 밋 음을 소기 미라 그러므로 비록 잇  
든 날 듀연을 지 내 나 반득 시 이어 넓어 그 편  
수를 둔 흠연 후에 이에 새로 바든 거 슬 넓으  
로라

내 동적의 이 신 때 예 흠상 신이 이 셔약원 제게  
되여 날느려 날너 글오 뒤의원 이니 로 뒤비  
목탕 제를 지어 드리 나 반느시 진복지 아니  
흠다 흠야늘내 뒤압 흠야 글오 뒤복흠면복  
흠다 니 르고 복지 아니면 복지 아닌는 다니  
를 때 니 엇지 사름을 소기 리오 흠니 상신이  
내 말을 머더 스조일노 배말흠느고 로이 제  
경신이 비목모손호매 니 르러시 나 오히려  
므음의 귀목흠야 오직 그 말을 뵈지 못흠싸  
저 허 흠노라



내 향일 마음의 동동함 재운 지의 뵈이 심스듯  
크편강의 경이이 심스듯 여속소의 계을이  
지아니 하니 이도 향기 질이 너모 조급함으  
로 날됨이라 그 러나 내 곳오직이 믿음 이후  
향일함 가져 허노라

향일파 향블이 리다 이 시노 비록 일용 짐들의  
미향기 거시 나고 세와 그 용이 리아 님의 열매  
이라

내 주강불식네 글뜻의 유연이 탄향야 글오피  
이엇지 향갓 후분공 뷔리 오나라 다스리는

되도 흠이 에외치 아니함이라 호라

위거벽옥이소소함기로배달을밋브게함며  
명명함기로히음을게을니아니함니이도함  
독구를삼가는일이니라

내고요함해예트고소는재능히맞치나함되  
예를이일함을싱각함고스스로탄함야를  
오되후자의구인의일귀정히이긋다호라  
슬프다오는자의물이일함은분과일시의  
탄이어나와후자의일귀는곳어질며어리  
매판단호미이라

내 비록 광덕이나 믿음의 향스스로 힘쓰는  
재서히이시니 사름의 말이 비록 후선치 못  
흐나 흠갓양치아닐 쁘아 나라오 히려 사름  
이 후알가저 허하며 사름이 비록 믿음의 맛  
지아니 미이시나 그말의어진 자는 미양귀  
복흐야 두어 흥흥며 사름의 흥서만 일 후선  
치 못흐면 그 사름이 이 신즉 비록면 칙흐나  
그 사름이 잇지아니 면다시 믿음의 착흐며  
사름드려나르지아니 호라

지글으샤 저레라나르고 레라나르 들을 옥 베풀을

너름이며 악이라니 듣고 악이라니 듣들종  
교를 너름가 흥시니 이태임의 관호므로 보  
터는 내보고 자아니 흥노라 탄흥시므로 더  
브터 그 뜻이 흥가지시니 진실노 경성과 공  
경으로 흥야곰 독실흥고 지극흥면성인이  
엇지이 흥을 두시러 오저도 흥글으샤 더분  
과 질이 빈빈흥연 후에 균저라 흥시니 이가  
히 배부사의 뜻을 보올더니라

향소의 흥흥배성과 경만 마트니 업스니 저계  
는 배성경을 늘위논 배라 너이에 비록 감히

적이부리오지못하니 스스로도라보매성  
성이여로니엇지능히감부리오이내배  
출연하야흥감하는뱃재로라

슬프다다섯 향스속년의비록다레기치몸  
소행하니추모하는모음이오히려능히퍼  
지못하니일년의다만은 향스를행호미  
엇지 스스로일위는정성이리오이내흥일  
의모음을본져더욱감회더하는재로라

물잇 향스의비록레필흔휘나봉안함고  
번을뱃스온전은감히면을척지못호라

흥상날의 모습의 스스로 경계하는 벗재인분  
인세글썬나그러나맛당이분인치아념즉  
흔되블인흥면이는부인의블인이니라

대흥의격치와성경이그본이소흥의쇄소와  
응되예이시니이젯사람의례모를방홀흥  
는재다르미업슨지라능히공부를소흥의  
착지못호므로그러미니라

귀거흥야모음이티만흥은경주의경계흔배  
니귀거와경좌사이예모음잡으며노호미  
관단흔지라가히삼가지아니흥라



물잇스위예성성과공경의흠을재이시면  
급히스스로겸연하야후에반드시  
허물을을기온후에야  
므음이이에평안호라

아동선위스스로쇼후동지라  
일극큰재이시니쇼후의  
되비록일성데행하야  
도오히려유와하나라

경석를덜덜법은맛  
팡이의리를궁구하교스  
기를보단종요는반  
드시치란을분별을  
덜너므음의반일이  
를두면스스로부  
함함스미이시리라

귀질의 탐용은 자는 진실 노가 하니 들거 사업  
거니와 즈뭇이 슈미하고 능히 공부 들 짓지  
아닌는 자는 더욱 개척은 지라 오희라 원량  
은 멩히 이에 척 념은 더 어 다

시란 말 되 음이 엇지 특별이 물우만 그 치미  
리 오 비 록 말에 올흔 자와 형의 어진 재라도  
그 만 일히 온 배이 셔 말 하며 히 온 배이 셔 형  
은 면이 또 은 시 나 라

은 드 다 이 세 지 은 편이 불과 흥 일 일 들 은 자로  
버 날 넷는 자라 비 록 경 전을 인 하 야 시 나 말

이서어흥기예섭흥니고엇지능히도음이  
이시리오마는내이에도권권흥남은뜻이  
이시니엇저호슬프다현이되며위되미다  
름이업손지라리와다못육이며공과다못  
서니조흥다너원량은물잇흥념네동흥매  
모음의스스로검찰흥야글오되이런리냐  
인육이나야흥야고만일천리여든비록적으  
나확흥야흥흥며고만일인육이어든비록  
적어나알흥야극흥고물잇스위예만일공  
인댄비록적어나반드시흥흥며만일선편

비록적으나반드시거야조처도반드시  
이에흥며유유도반드시이에흥야배인옥  
이녕진흥고련리류흥흥기예니르면삼디  
의다스림을거의가히다시볼떠라오희라  
원량은명심테흥흥야내의거름니르는데  
을테치말라

어제서성현